

무안군, 치매 걱정 없는 행복 무안 조성 '총력'

치매안심센터 이전...접근성 제고·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유번호 인식표 보급·위치 추적 배회감지기 등 지원

무안군이 '치매 걱정 없는 행복 무안' 조성을 위해 치매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24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월 기준 ▲치매환자 2천89명 ▲경도인지장애 604명 ▲인지저하자 324명 등 총 3천1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다.

무안군은 치매안심센터를 지난 4월 개칭한 보건소 신청사 내로 이전하며 접근성을 높이고 최신 시설을 활용해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지원, 치매가족지원, 치매 프로그램 운영, 치매 인식개선 사업 등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치매조기검진을 위해 60세 이상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치매검진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으로 마을 경로당과 복지시

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이후 심층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치매협력병원과 연계해 갑별 검사비를 지원한다.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치매치료 관리비·조호물품 지원, 배회감지기·인식표 보급, 맞춤형사례관리, 치매공공후견 사업,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치료 관리비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실비) 상한으로 지원했다. 특히 이달부터는 중위소득 121~140% 이하 치매환자에게도 치매치료 관리비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위생소모품)을 소득에 상관없이 매년



무안군이 치매 걱정 없는 행복 무안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무안군치매안심센터가 무안 서러아파트경로당에서 진행한 '한글 호습' 치매예방교실의 참여 어르신들이 한글 교육을 받고 있다. <무안군 제공>

재가 치매환자 800여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3명을 양성해 의사결정이 어렵고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재까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1천161명에게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보급하고 중증 치

매환자 90명에게는 위치 추적이 가능한 배회감지기를 2년간 무상지원함으로써 실종 시 조속히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증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매환자의 사회적 접촉을 증진하며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무안군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무안 조성을 위해 치매파트너를 양성하고 개인 사업장을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 치매극복 선도단체 등을 구축했다.

이 밖에도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정서적 지원을 위해 치매가족(보호자) 상담 및 돌봄 부담 분석, 자조모임 운영, 가족프로그램 운영, 동반 치매 환자보호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치매관리가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치매환자·가족·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치매 걱정 없는 행복 무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강진쌀 상반기 매출 49억...전년비 3배 '경증'

통합RPC 지속 판촉활동 등 성과

강진쌀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상승하면서 명품쌀의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강진쌀 매출이 49억원으로 전년 동기 15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

앞선 성과는 지난해부터 제주도와 통합RPC가 협력해 지속적인 판촉 활동을 실시한 결과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강진원 강진군수가 직접 제주도를 방문, 강진쌀을 홍보하면서 많은 신규 업체에 강진쌀이 입점했고, 기존 납품처의 물량도 늘어났다.

또한 군정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에서 추진한 각종 오픈마켓 행사 및 B2B를 통한 강진쌀 판매도 성과를 보였다.

올해 처음 도입된 '반값 강진여행' 정책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강진을 방문해 여러 소상공인 상품뿐만 아니라 1차 농산물 구입에도 한 몫을 했다.

반값으로 지급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착(Chak) 어플을 통해 초록민음강진소평물에서 사용함으로써 소평물 매출



강진원(가운데) 군수가 지난 5월 제주시농협을 방문해 강진쌀 판촉활동을 전개했다. <강진군 제공>

또한 상승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진군은 강진쌀 판매를 위해 3억8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장재 제작, 평생고객택배비·제주도 물류비 지원 등 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반기에는 통합RPC와 함께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수출을 위해 중국 내 텐진, 상하이 지역에 강진쌀을 수출하기 위해 바이어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매출 활성화를 위해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온라인 오픈마켓 행사와 강진군직영 소평물 '초록민음강진'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해 강진쌀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매출 증가는 강진군의 농업과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성장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암군-몽골 노민그룹, 영암쌀 수출 협약

몽골 재계 상위권 기업...현지 백화점·대형마트 등 61개 매장 갖춰

영암군은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 코퍼레티브에서 현지 유통업체인 노민(Nomin) 그룹과 쌀 수출 협의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를 포함한 영암군 몽골 방문단 일행은 이번 협의에서 수흐바타르 노민그룹 총괄매니저 등과 만나 영

암쌀 수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노민그룹은 1992년 설립, 29개 계열사에 6천여명을 보유한 몽골 재계 순위 5위의 기업으로, 백화점·대형마트·아울렛 6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협약의 결과 영암군과 노민그룹은 쌀뿐만 아니라 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

논의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실무자 협의를 거쳐 수출협약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쌀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 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암의 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 수출하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몽골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해 있고, K-컬처, K-농산물 등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영암=나동호 기자



해남군, 한여름밤 K-POP 축제 내달 개최

내달 2-3일 군민광장서...트로트 공연·랜덤 플레이 댄스 등 다채

해남군이 오는 8월2-3일 이틀간 해남군민광장 일원에서 '2024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미니 K-POP 콘서트'를 개최한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매년 여름 군민광장에서 펼쳐지는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더위에 지친 군민들에게 활력을 더하고, 즐거움을 주는 대표적인 여름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2일 해남예술인 한마당, 3일 미니 K-POP 콘서트로 꾸며진다.

해남예술인 한마당은 2일 오후 7시부

터 초대가수 송대관을 비롯해 염유리, 강혜연, 진이랑, 금강 등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미니 K-POP 콘서트는 3일 오후 8시부터 마야, 이무진, 트리플에스, 파워(PoW), 유니스(UNIS) 등 실력과 가수들과 아이돌 스타들이 출연해 뜨거운 열기로 여름밤을 달굴 예정이다.

미니콘서트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K-POP 플레이그라운드 행사도 진행된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10개 지역 유명 축제 및 관광지

와 연계해 열고 있는 이번 행사는 전

남에서는 유일하게 해남이 공모에 선정돼 해남군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기간에 열린다. 이밖에도 K-POP 아이돌 파워(POW)의 팬 사인회, 유명 댄스 크루인 '엠비서스'와 함께하는 랜덤 플레이 댄스를 진행한다. 랜덤 플레이 댄스는 무작위로 K-POP 음악을 틀어주면 그에 맞춰 커버 댄스를 추는 쉐릴지오, 대회 1회부터 9회까지 회별 우수 참가자를 선발, 우수 참가자에게는 서울에서 9월 말 열리는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에 도전할 자격을 준다.

해남군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지난해의 아쉬움을 한번에 만회할 만큼 열정의 무대를 준비했으니 군민은 물론 전국의 K-POP 팬들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전남서부보훈지청, 유엔군 참전의 날 맞이 '보보스쿨' 운영

유치원생 150여명 참여...참전국 국기 만들기 등 체험

전남서부보훈지청은 24일 "지난 23일 유엔(UN)군 참전의 날을 맞아 목포시 '아해누리 어린이집' 원생 150여명(5-7세반)을 대상으로 '보보 어린이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보보 어린이스쿨'은 국가보훈부 공식 캐릭터인 보보(保報)의 뜻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保)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보답(報)하는 미래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남서부보훈지청의 특별 사업이다.

이날 어린이집 원생들은 유엔군 참전의 날의 의미를 배우고 유엔 참전국 22개국의 다름블럭 국기를 직접 만들면서 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향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은 "이

록 하는 전남서부보훈지청의 특별 사업이다.

이날 어린이집 원생들은 유엔군 참전의 날의 의미를 배우고 유엔 참전국 22개국의 다름블럭 국기를 직접 만들면서 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향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은 "이



번 활동을 통해 미래세대가 '유엔군 참전의 날'을 기리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기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완도자연그대로 해변 포도' 본격 수확

해풍 맞고 자라 당도 ↑·맹글맹글 식감 일품

완도군은 24일 "완도 군외면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완도자연그대로 해변 포도' (사진) 수확이 한창"이라고 밝혔다.

'완도자연그대로 해변 포도'는 캠벨 포도, 샤인머스켓, 거봉 등이 재배되고 있다. 포도는 과일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비타민, 아미노산, 유기산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완도자연그대로 해변 포도'는 일반 포도에 비해 미네랄이 풍부하며 향이 짙고 당도가 높은 게 특징이다. 당도는 17brix로 단맛이 강하고, 포도알이 텁글맹글해 껍질째 먹어도 식감이 좋다.

하우스 재배 포도는 7월 중순부터 수확과 함께 판매를 시작했으며, 노지 포도는 8월 하순부터 본격 수확할 예정이



다. 휴가철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완도 진입 시 군외면 해안도로를 이용하면 싱싱하고 달콤한 포도를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포도 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화된 생산시설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함평, '찾아가는 민원창구' 운영

함평군은 "최근 접근성이 취약한 사회배려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민원 고충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 행복버스와 연계한 이번 '찾아가는 민원창구' 사업은 간단한 생활 불편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민원은 담당부서 연결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다.

또한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24 시스템 교육과 읍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엔 방문한 읍다면 성산마을에서는 가로등 고장신고 등 생활불편 민원 등을 접수해 현장 처리하는 등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정상우 민원봉사과장은 "마을 주민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함평=김연수 기자